

환자 돌보다 넘어져 뇌사...장기기증하고 하늘로

생명나눔 실천 고충 출신 요양보호사 정연순씨

10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아프고 힘든 어르신들 돕기 위해 최선 가족, 평소 고인의 봉사정신 기려 간·신장 기증...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요양보호사로서 평생을 아프고 힘든 이를 도우며 살아왔던 고충 출신 고(故) 정연순(60)씨가 지난달 30일 장기를 기증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맞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정씨가 최근 명지병원에서 간, 신장(좌·우)과 조식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1960년 전남 고흥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정씨는 젊어서 방직공장에서 일했으며, 10여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집에서 일을 돕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급하게 119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인한 뇌사 추정 상태에 빠졌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가족들은 평소 정씨의 봉사 정신을 살려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정씨는 평소 가족들에게 "만약 본인이 죽게 된다면

좋은 일을 하고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해, 사골이웃집이 농사일로 힘들어하는 것을 하고 길에도 먼저 나서서 도왔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것도 사람을 좋아하고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언니 정연진씨는 "쓰러지는 날까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간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기증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가니, 부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하늘나라에서도 새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 행정적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가족지원팀이 포괄적 가족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故) 정연순씨 생전 모습.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이클 샌델, '차이나는 클래스'서 랜선 강연

능력주의 주제로 4일·18일 방영

JTBC 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질문 있습니다'는 세계적인 석학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4일과 18일 방송에서 인택트 강연을 선보인다고 2일 예고했다.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샌델 교수는 강연에서 '능력주의'를 주제로 특별한 문답을 펼친다. 그는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당연하고 공경해 보이는 능력주의의 숨은 그늘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4일 밤 10시 30분 '1부 일터 편', 18일 밤 10시 30분 '2부 학교 편'으로 나누어 방송된다.

제작진은 본방송에 앞서 스페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 속 샌델 교수는 '차이나는 클래스'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출석을 불렀다. 오상진은 "'공경하다는 착각' 책을 샀다"며 샌델 교수의 책을 직접 가져와 이번 강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점사국, 화훼농가 돕기 '꽃과 함께하는 감사'



농협 조합감사위원회 전남점사국(국장 이철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협 종합감사 때 임직원들에 꽃을 나누주는 '꽃과 함께하는 소토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송원대, 노인장기요양기관협 광주지부와 업무협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지부장 황옥화)와 2일 송원대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송원대 제공>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설맞이 떡국 세트·온누리 상품권 후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김석원)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경준)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서구청을 방문해 떡국 재료 세트와 온누리상품권 등 8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김석원 회장은 "어려움수록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랑나눔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활동이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사회공헌 동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후원품은 서구청을 통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7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전남중소기업계는 지난해 8월 광주·전남 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1억원 상당의 후원품을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10 좋은아침
10	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 힘 45 팔도방송 스페셜(재)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50 기본 좋은 날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45 SBS 뉴스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5 UHD 숨터	00 바람피면 죽는다(재)	50 백파더 요린이 레시피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라바 아일랜드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핑핑 시즌2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유지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영성앨범 신(재) 50 땅만 빌리지(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특집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 네트워크 특선 에미상 결선 진출작 할머니			00 뉴스브리핑
3	25 KBS 네트워크 특선 호놀룰루 빨대방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펫 비타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X 여섯개의 예언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티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50 지방분권 대전환, 지역뉴스의 도전	50 비밀의 남자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	2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나의 판타집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55 특선영화 미쓰GO	20 라디오스타 1~2부	25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양로촌 창사60주년 특집 VR 휴먼다큐 뉴를 만났다 로망스	10 나이트라인 40 상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5:30 클래스 e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이 하나
06:00 한국기행	12:25 지식채널e	19:00 위베어 베어스: 곰 브라더스
06:20 세계테마기행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9:45 바닷가 사람들(재)
07:15 출동! 슈퍼핑크	13:55 EBS 초대석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척도의 꽃-올라와이드 브라질>
08:00 당동명 유치원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08:30 고고다이는 우리동네공룡	16:15 울리맨 문	<우리 어릴 적에는 3부
08:45 위안극장 리턴즈	16:30 당동명 유치원(재)	춘농들이 돌아왔다>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 해와	21:50 EBS 다크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태시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3일(음 12월 22일 壬午)

<p>36년생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기입니다. 48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60년생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라. 72년생 순기능이 극대화 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84년생 줄게 하려다가 더 망칠 수도 있다. 96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0, 79</p>	<p>42년생 약간의 변동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54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66년생 막연한 꿈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8년생 과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더 나은 계기를 마련한다. 90년생 고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인연은 새로우나 기대할 바는 못 된다. 행운의 숫자 : 33, 71</p>
<p>37년생 신경 쓰지 않으면 결핍 될 수도 있다. 49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법이니라. 61년생 어림잡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73년생 상대의 충고를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자. 85년생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면역할 수도 있다. 97년생 안도의 한숨은 들리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4, 84</p>	<p>43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55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금전적으로 대박 나게 되어 있다. 67년생 파도가 높으니 배를 띄우면 안 되겠다. 79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91년생 여러 말을 다 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몇 마디만 하면 그만이다. 03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김흥이 좌우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9, 66</p>
<p>38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듯하리라. 50년생 아직은 모호하니 추이를 지켜봐야 할 판국이다. 62년생 두루 살펴보아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74년생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고역이 될 것이다. 86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98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36, 99</p>	<p>32년생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44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56년생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68년생 정면대결로만 해결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0년생 머지않아 가다가 잡힌다. 92년생 강한 행운의 암시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3, 53</p>
<p>39년생 가장 현실적이고 명료한 것을 선택하라. 51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 해오던 것을 마침내 이루리라. 63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75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87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99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08, 92</p>	<p>33년생 잠깐만이라도 자기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 45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57년생 최소 화할 수 있는 조처들이 필요하다. 69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도 된다. 81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93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77</p>
<p>40년생 중북 된다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년생 체계를 잡고 요령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76년생 상대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88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00년생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정도로 난처한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01, 89</p>	<p>34년생 끌려 당하지 말고 주체적이야만 한다. 46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58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70년생 예정된 절차대로만 이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2년생 평시에 우산을 준비해 뒤편에 우기에 대비할 수 있다. 94년생 아주 자연스러운 테크닉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4, 94</p>
<p>41년생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53년생 우선시 해야 할 바가 분명히 있다. 65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짙겠다. 77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 하느니라. 89년생 가끔적인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낫다. 01년생 사실투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07, 56</p>	<p>35년생 판세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함이 보인다. 47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나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59년생 타당성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71년생 예정과는 달리 흐름이 심상치 않다. 83년생 과거의 관행과 전형을 따랐을 때 완성이 높아진다. 95년생 커다란 관점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1, 58</p>